

포천사회 知識人 30

경북대학 함도훈 교수

기업회계 · 영업 · 마케팅 분야 전문 기능

‘포천시 유통업특별위원회 조직 가동 필요’

“첫째, 관계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의 이론들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선형변인들을 찾아내어 신뢰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화된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념화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공급업자와 구매업자간의 신뢰형성관계를 보다 확대시켜 공급업자의 대리인과 구매업자를 핵심당자로 설정하고 쌍방간 독자적 신뢰형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쌍방의 독자적 신뢰는 쌍방간 지각차에 따른 비대칭적인 신뢰수준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쌍방의 신뢰수준의 차이와 사후 행동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본 연구모형에서 이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함 교수는 포천시가 한시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리는 지식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 교수는 아직은 시스템이 낙후된 유통시스템의 현대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기업체에서 유통관련 자문을 한다면 시간을 할애하여 자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선배와의 대화시간도 마련한다. 경북대학 출신으로 사회에 나가 성공한 선배들을 초청해 특강도 마련하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함 교수는 포천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포천군 구조조정 심의위원, 한국 경영컨설팅학회 상임이사, 한국 경영컨설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 유통학회 이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교과별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함 교수의 주요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마케팅부서와 연구개발부서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1993, 국민대학교) ▶생명 보험업계 구조변화를 위한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1996, 산업과 경제) ▶전문대학 경영과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7, 경성논총)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위한 벤더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1998, 경성논총)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수명 주기 상에서 데이터 품질의 평가요소 및 품질향상방안에 관한 연구(1999, 경성논총) ▶브랜드 확장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1999, 경성논총) ▶기업광고유형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0, 경성논총) ▶경로구성원 쌍방의 독자적 신뢰에 관한 연구(2000, 마케팅 저널) ▶유통경로 상에서 경로구성원 쌍방의 독자적 신뢰에 관한 연구(2002, 국민대학교) ▶공급업자의 대리인과 구매업자간의 비대칭 신뢰에 관한 연구(2004, 유통연구)

또 축제가 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반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함 교수는 지역사회의 기업체와 학교가 연결하여 실습을 하고 취업과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기획도 하고 관련상품 마케팅, 실습을 통해 학점을 부여 받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학이 함께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저녁시간에 대학강의실은 비어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기업체 보수교육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와같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학은 학생들의 현장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CEO 과정이 단순히 인맥 쌓기에 그치는 경우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유통시스템 현대화, 선진화 기틀마련 위해 연구

창간 17주년 기념사

최호열 (본지 발행인)

지역 균형발전 중심 역할

포천신문이 창간된지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1월15일 창간호를 세상에 선보인지 17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10월25일 재창간호를 발행하면서 포천 제일의 정론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올바른 집현정장을 밀도 있게 분석하여 보도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낱낱이 보도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동한 곳에 이종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신문은 그동안 정치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의 시정을 해설 소개하고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동안 포천시민은 물론 재경포천시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지원으로 괄목상대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본지 창간 제16주년 기념식장에서 보여주시던 포천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해도 언론 본연의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해의 결과 또한 비록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지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등 5개 기구 구성원들이 내일처럼 각 기구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신 점 또한 높이 평가되는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지 창간 제17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나아갈 방향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포천의 정치형태는 해석하기가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흐름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지역정치의 모습은 지역만의 독특한 정치문화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앙정치와 차별화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안에 포천의 정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의 발굴과 지속적인 보도로 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포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2개 초·중·고등학교와 3개 대학이 있어 교육여건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연계교육 부재와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등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의 피교육자에 대한 사명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교육자 또한 적극적인 교육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의지와 열정을 보도하고 추진이 어렵거나 난해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과 분석 기사를 통해 포천의 교육이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포천 사회복지의 균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넷째, 포천 문화예술의 신장 고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포천문화는 학문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이를 전승, 보존, 발전시키지 못해 현대 문화예술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큰 영향을 거두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포천의 현대 문화예술이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보도하고 잘 된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정책을 심층분석하여 지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오피니언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못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와 행정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대화의 장에서 도출된 결론은 물론 그 과정을 지상중계함으로써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재경포천시민의 에너지와 포천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포천출신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재경포천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 포천시 발전을 위한 대화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경포천시민의 모임을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포천시 발전에 관한 관심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2005년11월부터 추진해온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관내 어려운 학생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액수가 적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모금액이 증가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포천신문이 나아갈 주요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다양한 보도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포천시민은 물론 재경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이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느껴보세요! 준비하는 포천의 변화를... 지역공항 유치,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포천 신도시 개발, 포천관광레저사업. 제3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 2007. 1. 6 ~ 1.28